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25일

KATHY HOCHUL 주지사

연방 초당적 총기 법안 제정에 대한 KATHY HOCHUL 성명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대규모 폭력 사태에 시달려왔으며, 버펄로의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과 텍사스 우발테의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약 30년만에 연방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켜주신 Biden 대통령, Pelosi 하원 의장, Schumer 상원 여당 대표, 뉴욕주 의원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법안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의 진전입니다. 연방 수준의 신원조사 강화, 불법무기 구매 및 총기 밀수 규제, 보이프랜드 루프홀 제거,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투자 등은 즉각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버펄로에서 백인우월주의자의 테러가 발생한지 단 몇 주만에 우리는 전국을 선도하는 총기 안전법 강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개 법안으로 구성된 종합 법안 패키지는 만 21세 이하의 반자동 라이플 구매 제한, 레드 플래그법(Red Flag Law) 확대, 보디 아머 판매 제한, 사법 당국의 가용 수단 확대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이 이번 주 잘못된 판단을 내림에 따라, 저희 팀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 30일 뉴욕주 의회 특별 회기를 소집하여 새로운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저는 의회에 이러한 우리의 결정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추가 조치 시행을 촉구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